



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배포시부터 ▶자료배포일: 2014.1.20 ▶담당부서: 대변인실 (02)2100-5622~8
▶생산부서: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최은주 주무관 (02)901-7063 horedi79@korea.kr

제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모집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3기를 모집함.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 선발인원 : 150명
 - 활동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접수방법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온라인 지원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1일(화) ~ 2014년 2월 26일(수)
 - 발 표 : 2014년 3월 14일(금)
-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을 주제로 한 기사 작성, △통일 관련 현장체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개개인의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
- 지난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2기 기자단은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통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국 각지의 기자단과 교류하였으며,
 - 평소 쉽게 갈 수 없었던 판문점 견학, 통일송 경연대회, 리더쉽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통일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음.



- 최종 선발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게는 장관 명의의 위촉장 및 기자증 수여, 작성기사에 대한 전문가 첨삭 지도, 전문적인 기자 소양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 기자단 기사가 게재된 월간 소식지가 전국에 배포되어 기자단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통일부는 어린이 기자단이 지속적으로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통일한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 붙임 1. 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 사진
2. 2기 기자단 월간 소식지

통일부 대변인



<붙임1> :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 사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로고



발대식



통일캠프 단체사진



통일골든벨



판문점 견학



통일송 경연



<붙임2>

어린이 기자단 월간 소식지

4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kids.hankook.com

제16267호 **소년한국일보**



통일된 미래의 내 모습

인기 가요 '우리 통일 스타일' 제작 참여
문화 상품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덕행 씨

"우리 통일 스타일, 우리 통일 스타일"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통일 스타일'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재탄생한 노래로, 남북한 예술인들이 1개월간 공동 작업해 만들었다.

그 과정에 문화 상품 매니지먼트 전문가인 이덕행 씨가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여 년 동안 문화 상품 매니지먼트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 씨는 음악이나 그림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와 기념식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제작 및 실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국민 가요 '우리 통일 스타일'과 통일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3D 일체 지도 등을 제작했으며, '통일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도 기획했다. 그는 특히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 상품을 제작 중이다. 대중 문화를 통해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통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어떤 이덕행 씨는 남북의 전통과 문화가 아우러진 통일 스타일 국민의 마음을 열어 연결하는 고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덕행 기자서신 초평초등 5)

남북 하나 된 그날의 감동 잊지 않길
통일 한국 대통령 차이현

이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통일 작업을 만나다'에서는 2013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한 명이었던 차이현 대통령을 만났다. 차 대통령은 대박 출연 후 기자, 국회 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국회 의원 활동 당시 남북한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법을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일법' 제정이다. 당선 이후에는 다양한 통일 관련 정책 실행에 힘쓰고, 각 분야 인사를 지역 차별 없이 고루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와 회담을 하면서 통일 한국에 대한 생각을 듣고 있다. 특히 통일 선배인 독일로부터 많은 경험담을 청취하고 있으며, 아담에도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차 대통령은 최근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차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통일 한국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평화상을 받는다면 이를 국민에게 바치고 싶다. '며, 자신이 기여되길 바란다. 통일을 위해 애는 모든 사람, 그리고 통일을 이룬 그날의 벅찬 감동을 잊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앞으로 차 대통령이 어떤 통일 한국의 미래를 펼쳐 나갈지 기대한다.

(차이현 기자서신 한울초등 6)

통일 상식 마당

북한의 시험 시간

북한의 학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년에 두 차례 정기 시험을 치르며, 평상시 평가를 학기 성적에 반영한다. 시험 시간은 45분이다. 보통 10문제를 출제하는데, 교사가 시험 문제를 읽어 주거나 칠판에 적고 학생들은 이를 받아 적는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푸는 시간은 25분 정도에 불과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문제의 답을 다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시험이 끝나 후 재검이 시작된다. 시험 성적과 평상시 성적 비율을 7 대 3으로 계산하며,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 등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북한의 인기 스포츠

북한은 지난해 국가 체육 지도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 시설을 늘리는 등 스포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선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체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축구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다. 남자 축구는 물론 여자 축구 역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여자 축구는 국제 무대에 나가 여러 번 우승을 거두는 정도로 실력도 뛰어나다. 축구 시즌이 끝난 겨울에는 농구를 즐기며, 그밖에 탁구 권투 레슬링도 인기 있다.

통일 카툰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우리 끝이 아닌 시작이야 (인물 기자서신 남한초등 6)

FOREVER

심사관 금상송 검색어

1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123
2	발대식	↑92
3	통일	↑2
4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7
5	통일 리더십 캠프 여름 캠프	↑68
6	해단식	↑75
7	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40
8	친구들	↑5
9	운영진 선생님들	↑7
10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마치며	↑113

1.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말하거 욕스러워 망설였던 기억이 나. 그래도 금방 친해지고 웃고 놀았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야!

2. 발대식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말하거 욕스러워 망설였던 기억이 나. 그래도 금방 친해지고 웃고 놀았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야!

3. 통일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노력하면 통일은 서로 다가가 있을 거야.

4.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매달 한 차례 과제 제출, 친구들과의 소통, 블로그에서의 다양한 이벤트...

5. 통일 리더십 캠프 여름 캠프
우린 댜, 삼일한 그곳에서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 그리고 우린 배웠어.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들.

6. 해단식
눈앞에 다가온 2014년, 해단식이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 될 듯해.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2기 기자단 동창회 야매!

7. 3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누가 될진 아직 모르겠어. 그러나 기대하고, 믿고, 그림자처럼 든든히 지켜볼게!

8. 친구들
친구들이 있었기에 기자단 활동을 할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 고이워!

9. 운영진 선생님들
유니통 선생님, 통일부 기자단 선생님, 발간진 선생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마치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참 값지고 소중한 기억이었어. 우리 미가 나만 기억하자.

아직 우리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인거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돌아보며

설레고 기뻐던,
그리고 즐거웠던 순간들

"발대식..."
발대식을 마치고 첫 번째 과제를 고민했던 때가 있 그제 같은데 기자단과 함께한 한 해가 끝을 향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아서 쓸 말도 많다. 나는 우연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 기자단에 합격했다는 연락에 설레고 기뻐했던 그날이 기억 먼저 떠오른다.

발대식을 통해 기자단 친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열정을 타오르는 친구들을 보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한 한 해에 대해 계획도 세워 보았다. 통일 리더십 캠프도 기억에 남는다. 발표 선생님들의 통일 리더십 특강, 친구들과 즐겁게 만든 통일 동화가 하나씩 생생하게 떠오른다.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1박 2일이었다. 통일부 기자 활동 덕분에 평소 애보지 못했던 일도 많이 해 봤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알려 주고, 북한에 대해 잘못된 지식도 바로잡아 주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부끄러웠다.

나의 초등학교 6학년 한 해를 멋지게 장식해 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김예은 기자서신 명원초등 6)

내게 많은 수확을 안겨 준
없어서 안될 존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내게 많은 수확을 안겨 주었다. 첫 번째 수확은 통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받기도 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곧잘 답하게 되었다.

두 번째 수확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주로 사회, 스포츠, 국제면만 보던 내가 요즘에는 '북한에 대한 기사를 나오지 않았을까?'하고 정지면을 가장 먼저 펼쳐본다. 마지막 수확은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변화다. 활동하기 전에는 '통일은 언제가 이루어지겠지. 나 같은 어린이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곧 통일이 이뤄질 거야.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친구들과 함께 다짐한다.

나는 제2기 기자단으로서 꾸준히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이 계속되어 많은 어린이에게 통일의 꿈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지현 기자서신 중평초등 6)

짜릿하고 멋진 추억이 가득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2013년 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5학년 때 우리 학교에 북한 아랍 주권 친구가 전학오면서 나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도 지원하게 되었다.

발대식에서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을 외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8월 개최되었던 통일 캠프였다.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통일송 경연 대회는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견학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통일에 대해 배우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기자단과 함께 보낸 2013년은 짜릿하고 멋진 추억이 가득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나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외치겠다.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현승 기자서신 남주전초등 6)